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3주일(성모 성월)

제31권 24호(가해) 2011.5.8

[묵상]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카라바조, 런던 내셔널 갤러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여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먼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서 그분을 보지 못한 것도,
가슴이 뜨겁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저희를 눈멀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지퍼주신 뜨거움도
그 기원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며 꾸짖으십니다.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러 굵뜨냐?”

제자들은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봅니다.
그분과 함께 빵을 나눈 경험을 가진 이 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눈 기억만이,
가슴이 타오르는 사랑의 추억만이
예수님을 알아 뵙게 해줍니다.
그 사랑의 추억이 먼 훗날 다시 만날 때
저희가 예수님을 알아 뵙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앙 여정은
예수님과 사랑의 추억 만들기입니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전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이숙자 루피나, 권순봉 요안나, 노중성 로사, 엄은섭 도로테오 (생)정해홍 요셉,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최승아, 최태훈, 강호우, 송주영, 신동훈, 이화영 잔다르크
주 일 낮 미사	(연)이숙자 루피나, 고준희 제임스, 이분옥 안젤라, 박송희, 윤홍중, 엄익찬 안토니오, 김완태 다미아노, 주광자 안나, 최병오 & 김금래, 신태동 요아킴, 하현일 요셉 & 노향애 안 나, 이호예 안젤라, 허동수 루스 & 허정자 레지나 (생)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박명자 크리스티나, 박선희 소피아, 엄정자 분다, 이귀분 안나, 김기준 안젤라, 김옥희 바울라, 변혜경 올리아나, 오세원 아타나시오 & 오혜숙 루시아, 윤희동 안토니오 & 윤남열 세라피나, 최기남 야고보 & 최옥희 테레사,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Apostles) 2,14.22-33

화답송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 나 이 다.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않게 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제 2독서 베드로 1서(1 Peter) 1,17-21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 음 루카(Luke) 24,13-35

영성체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69	163	162
봉헌	324	257	259
성체	382	282	301
파견	Holy is the Lord	어머님 은혜	324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 생명의 복음을 위한 봉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모든 이들의 이웃이 되라는 부르
심을 받고 있으며(루가 10,29-37 참조),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이라
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이
방인,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과 태증의 아
기와, 고통을 당하거나 임종이 가까운 노인들을 도와줌으로써
예수께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분께서 몸소 이
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
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 그러므로 바로 이 문제와 관계된 성 요한 크리스소스토
모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있음
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경배하기 원하십
니까? 그 육체가 헐벗은 것을 보게 될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곳 교회 안에서는 비단천으로 그 몸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
몸이 추위에 헐벗고 고통을 당하는 바깥에서는 무시하지 마시
기 바랍니다."

생명이 관련된 곳에서는 사랑의 봉사가 반드시 심오한 일관성
을 가져야 한다. 인간 생명은 모든 단계, 모든 상황 속에서 신
성하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편견과 차별은 용납될 수 없
다. 그것은 분리할 수 없는 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
명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사
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는 바로 생명과 사랑의 뿌리에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남녀를 향한 이 깊은 사랑은 여러 세기들을 내려오면서
뛰어난 봉사의 역사를 만들어냈으며, 이 역사는 교회와 사회
안에 생명에 대한 많은 형태의 봉사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봉
사 형태들은 편견없이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
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새로운 의무감을 가지
고, 다양한 종류의 사목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서 이 역사를
계속 써 나가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을 지원
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계획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아기 아버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아기들을 세상
에 낳아 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들을 특히 도와
주는 것이다. 소외되거나 고통당하는 생명, 특히 마지막 단계
에 처한 생명에게도 이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

88). 이 모든 일에는 인내심있고 두려움없는 교육활동이 반드시
포함돼있다. 이 활동의 목표는 모두가 다 서로의 짐을 져주
도록(갈라 6,2 참조)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선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봉사의 소명을 꾸준히 증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선 복음 정신으로 가득찬 실제적
이고 장기적인 사업과 자발적 활동들이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

(◆계속)

지나쳐 가는 봄이 아닌 누리는 신앙의 봄

“바람과 햇살과 꽃들 같이 주어진 일상을 특별하게 다룬다면 봄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어느 작가의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유달리 늦게 시작된 사순절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하듯 그렇게 더디 온 봄이지만 쉽게 떠날 것 같은 불안이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기다려 온 시간에 비하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 ‘봄날은 간다.’는 말이 봄날은 짧다는 말을 당연하게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봄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부활입니다.

오늘 복음은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한껏 봄날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던 그들이었지만 봄날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기다린 시간에 비해 누린 시간이 턱없이 짧아서 함께 한 추억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높았던 기대만큼 커다란 좌절을 겪은 그들의 눈에는 이미 예수님의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봄날은 너무나 짧아 되돌이킬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마음은 늘 간절하지만 부활을 누리는 시간은 늘 짧게만 느껴집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한 느낌 속에 빈 무덤은 부활의 상징이 되기는 했어도 삶의 나침반이 되지 못한 채, 망각의 강물에 흘러보내지는 느낌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익숙해져 누릴 수 있는 부활을 누리지 못한 채, 봄날은 간다는 말처럼 그런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것이 지난 삶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봄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상을 특별하게 다룬다면 봄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신앙의 봄인 부활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일상의 전례인 미사 전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짧은 봄날과 같은 분이 아니라 늘 봄날과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은 그 봄날을 우리와 영원히 누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지 짧은 봄날의 기억을 선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실 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제자들처럼” 부활은 잠시 지나쳐 가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 누리는 전례를 통해 영원히 지속되는 신앙의 봄날이 됩니다. 다만 부활을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간직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일상의 전례를 특별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속에 자리하겠지만 말입니다. 해서 이번 부활은 매일의 성찬례를 통해 가는 봄이 아닌 오는 신앙의 봄으로 그렇게 맞이해 볼 일입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서울대교구 삼각지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테레사
제물봉헌자			사목회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재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성위"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5 월
성모성월

오늘 주일(8일)은 어머니날입니다.

Happy Mother's Day!

성모님을 신앙의 어머니로 모신 우리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육친의 어머니께 사랑으
로 공경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병자 영성체 : 13일(금) 오전 10시부터

◆ 미사와 함께하는 성모의 밤 : 11일(수) 오후 7시30분

- 각 단체 및 개인의 꽃 봉헌이 있습니다.
- 준비물 : 묵주, 가급적 한복착용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성경 퀴즈대회

- 일시 : 6월12일(주일) 오후 2시
- 범위 : 루카복음, 전례상식, 성가
- 게임방식 : Jeopardy 방식의 30문제
- 팀구성 : 6구역(토런스 동, 서, 남, 북, 하버/카슨, PV)
- 선수구성 : 구역대표선수 최대 7명 선발 가능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배론청년회장 ☎(310)650-6057

◆ 제67차 남가주 M.E. 첫주말 수료자 환영식

- 일시 : 오늘 주일(8일) 오후 6시, 강당
- 5부부 수료 : 박상원 야고보 & 박훈애 세실리아,
송근섭 발렌티노 & 송경옥 올리아나,
남성철 베네딕도 & 남경희 베네딕도,
이영식 크리스토퍼 & 박은혜 클라우디아,
배진영 프란치스코 & 유수정 클라라

◆ 야외14처 봉헌 기금마련 음식장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요셉회가 마련한 음식장터에 교우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후원으로 야외14처 중 제1처를 마련하게 되었음에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 요셉회원 일동 -

◆ 구역대항 천선 탁구대회 지난주일에 이어 진행중

- 일시 : 오늘주일 낮미사 후 천교장, 15일(주일)까지 계속
- 경기방법 : 구역별 리그전- 단식, 복식, 혼합복식
- 참가구역 : 토런스 동, 서, 남, 북, 하버/카슨, PV 구역
- 선수구성 : 남녀 6명(여성 두분이상 꼭 참가)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제8회 한마당 가족체육대회

- 미사시간 임시 변경 : 오전 7시30분과 오전 10 미사
- 일시 : 5월15일(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
- 청팀 : 토런스 동, 서, 북 구역
- 백팀 : 토런스 남, 하버/카슨, PV 구역
- 경품추첨을 통한 많은 상품과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등 김치냉장고, 2등 고급전기밥솥, 3등 LCD TV
이밖에 고급가방, 쌀, 식사권 등...
- 경품추첨권은 성당입구와 천교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당 체육분과장 ☎(310)594-9472

◆ 성경통독 '창세기' 시작-새 수강생 초대합니다.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전신자 대상
신구약 성경통독이 5월12일(목)부터 창세기에 들어갑니다.
새수강생을 초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2회 강의
- 강사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초중고등부 레지오 단원 모집

- 활동내용 : 무속자 음식봉사, 병자와 노인 방문
- 주회합 : 매 주일 오후 1시~2시, 2층교실 뒤풀이
- 문의 : 황해리 헬레나 ☎(310)749-3171
서정우 미카엘 ☎(310)738-2121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8일(주일) : 어머니날, 소공동체(김밥,떡 \$4씩)
- 5월15일(주일) : 본당체육대회 구역별 점심 준비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김원모 박씨니 성지용 오 진 이연행 정동호 최이원 황인중	금동균 김찬구 박인식 송영미 우영희 이은록 정지숙 최진수 황학수	김병조 남명자 박정희 송재훈 유영균 이인두 정해홍 이인석 최태훈 영화가보라	김선영 노찬술 박종열 신경훈 이명자 이인석 조운영 한금순	김선제 박동수 방정복 양영관 이병우 이재정 조화숙 한장환	김옥보 박상준 서성용 엄영희 이상석 장영진 최미열 홍광선
합계 : \$5,830						

미사헌금 : \$2,757 2차헌금 : \$881 사순애공부투 : \$100

성전헌금	강태홍 남명자 박종열 엄영희 이인석 최이원 황인중	김병조 노찬술 방정복 유영균 정동호 최진수 영화가보라	김선제 박동수 서성용 이명자 정지숙 최태훈	김옥보 박씨니 성지용 이병우 정해홍 한금순	김원모 박인식 신경훈 이상석 조화숙 한장환	김찬구 박정희 양영관 이은록 최미열 홍광선
합계 : \$2,890						

주보광고후원 : \$500(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소식

- ◆ 은총시장 행사 도네이션 받습니다.
 - 행사일정 : 6월12일(주일학교 종업식날)
 - 한국학교 은총시장도 같은 종업식날 열립니다.

◆ 고등부 전진성사

- 일정 : 5월 13일(오후 7시30분-9시): 리허설
5월19일 (오후7시): Reflection
5월20일(오후7시): 전진성사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Lomita)

◆ 첫영성체 예식

- 준비모임 : 6월4일(토) 오후3시, 고해성사, 리허설
- 첫영성체 예식 : 6월5일(주일) 낮11시 미사중
- 대상 : 주일학교 2/3학년 이상 학생
- 문의 : 강해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서머캠프

- 일시 : 6월24~26일(금,토,일) 금요일 오전 9시 성당집합
- 대상 : 3학년~12학년
- 장소 : 카추마 레이크(샌타바바라), 텐트에서 숙식
- 준비물 : 슬리핑백, 수영복, 모자, 운동화, 슬리퍼, 여벌옷, 재킷, 선블럭, Insect Repellent, 타월, 주일헌금
- 참가비 : \$40(5월30일 이후 신청 \$60) *신청 : 주일학교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학년~12학년
- 일시 : 7월29일(금)~31일(주일), 금요일 낮12시 성당집합
- 참가비 : \$185(5월30일 이후신청 \$205) *접수: 주일학교

남가주 소식

◆ 장애인 후원을 위한 작은 예수회 '1일 점심·차' 행사

- 일시 : 14일(토) 낮 12시~오후 2시
- 장소 : 작은 예수회 LA 장애시설(올림픽+후버)
- 메뉴 : 배추국, 불고기백반 정식 ☎(213)387-3301

◆ 제1회 가톨릭청소년 성화 그리기 대회

- 주제와 제목 : '주님은 나의 목자'(시편23)
- 대상 : 초중고등부의 영세받은 학생
- 응모비 : \$10 * 마감 : 5월21일
- 보낼곳 : 성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사무실
이혜숙 카타리나 ☎(310)953-7474
- 주관 : 남가주한인가톨릭미협 / 가톨릭신문 공동

◆ 제24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시 : 6월2일(목)~5일(주일)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한국지구장)
- 참가비 : \$150(마감 5월15일)
-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봉사회 총무 (213)435-7570

소공동체 5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차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415-0034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김정희 올리아 830-0106 5/6(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킵 530-7702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5/15(주일)
	2	이크리스 야카토 619-7763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경수 헬레나 415-0034	임진희 한나 415-0034 5/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크리스티나 750-4051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고천용 377-6328 5/13(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정충로 안토니오 325-9915 5/13(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인숙 안젤라 323-717-7866 5/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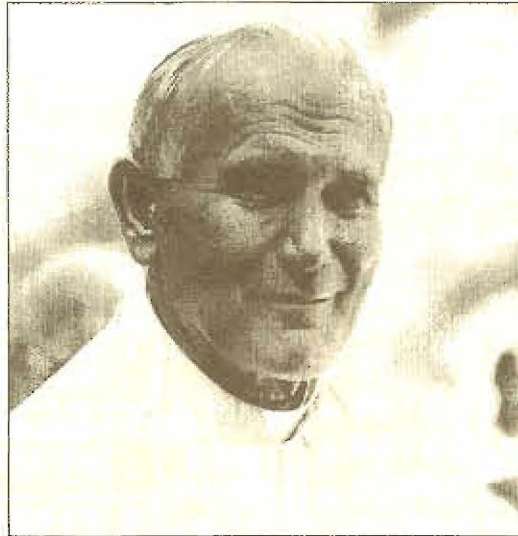
다음 주 단체 모임

본당 체육대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을 맞아 전 세계가 환호 중

5월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시복됐다. 그의 업적은 그가 이룬 '영웅적 덕행의 삶'이었다. 2009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영웅적 덕행의 삶'을 살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카롤 보이티아(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원래 이름). 그는 교황 임명 때부터 선종까지 세인들의 화제가 돼왔다. 그는 우선 공산국가 폴란드 출신이었고, 교황직을 수행한 첫 슬라브인이며, 네덜란드 출신의 하드리아노 6세 이후 첫 번



째 비이탈리아인 교황이었다. 그의 소박한 취임식은 교황직을 더 빛나게 했으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는 교황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38세의 폴란드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의 주교(1958년, 크라코프대교구 보좌주교)였으며,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참석, 사목현장을 다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1964년 그는 크라코프대교구장으로 임명됐으며, 불과 3년 뒤인 1967년 추기경에 서임됐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행동하는 교황'으로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유례없는 그의 지구촌 순방은 1979년 1월 멕시코 바하마 방문부터 2004년 8월 프랑스 루르드 방문까지 104회, 129개국 순방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 가운데는 두 차례의 한국 방문도 있었으며, 2000년에는 대회년을 맞아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을 성지순례하기도 했다.

'행동하던' 교황은 그 명성과 덕행에 따라 큰 위협을 받기도 했다. 1981년 5월, 베드로광장에서 일반알현 당시 저격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보편교회의 목자로서 그는 1982년 포르투갈의 파티마를 방문, 저격에서 자신을 구해준 성모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바쳤으며, 저격한 이를 오히려 용서하기도 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삶은 영웅적 덕행의 삶이었다. 사회주의 정권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졌던 그는 1989년 당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를 만나기도 했으며, 동유럽이 서유럽의 물질주의를 좇는 것을 보면서 회칙 「100주년」을 통해 자본주의의 맹점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그는 갈라진 형제들을 하나로 모으는 교회일치 운동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동방교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힘썼다. 1979년 이스탄불에서의 전례, 1986년 로마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의 설교, 아시시에서 가진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모임, 2002년 미국 9·11 테러 후 종교인들과 또 다른 아시시 기도모임을 열었던 것은 그가 교회일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

는 사례다. 교황으로서 파격적 행보를 내뉘었던 그에게 신앙은 늘 보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확실성의 교황'으로도 불리고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은 르페브르 대주교를 파문했으며, 피임, 낙태, 동성애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 입장을 취했다. 또 회칙 「진리의 광채」 등을 통해 전통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러한 올곧은 신앙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사회현상과 사회논리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인공수정과 무기산업, 대중매체와 인터넷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교회의 가르침을 일깨웠다. 하지만 최빈국의 부채를 탕감해달라는 외채문체에 대한 요청과 교회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청한 행동 등은 보수적 입장에서 벗어나 파격과 함께 그의 생각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종교전쟁, 종교재판, 십자군 전쟁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교의 잘못에 대해 비판적 연구를 하도록 했으며, 가톨릭 구성원들이 잘못된 지난 역사들에 대해 하느님의 용서를 청했다.

포르투갈 출신으로 교황청 시성성 장관을 지낸 호세 사라이바 마르틴 추기경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을 위한 기적 인정 칙령에 서명한 뒤 즉시 가진 회견에서 "전세계가 기다려던 일"이었다며 "더 없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가톨릭신문에서>